

명랑한 어린 조습의 역사 기억술



*

자주 인용되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표현처럼 “견고한 모든 것들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신성한 것들이 속세화(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all that is holy is profaned)”되는 격변의 시기가 있다. 살아 있는 동안 그 시기를 경험할 수 있다면, 천운을 갖고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견고한 모든 것들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동안 감추어져 있던 많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실은 잠시 피었다가 이윽고 지고 마는 바람꽃처럼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지고 만다. 꽃이 피어 있는 순간이 찰나처럼 짧기에, 단단한 것들이 녹아 내리는 그 순간을 이후에 깨달음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기억에 달려 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번은 아이였던 시절을 거친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어른들이 알려주었던 사실의 상당수가 거짓임을 알게 된다. 심지어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몰래 끄꽂 숨겨 놓았던 비밀도 있음을 알아채기도 한다. 사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배반감과 허탈감의 이중주로 만들어지는 고통을 피할 길 없다. 그게 성장통이다. 성장통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이지만, 성장통과 대면하는 태도에 따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모든 것들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의 결과는 달라진다.

성장통을 두려워하는 피터 팬은 바람꽃이 피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 지독한 성장통을 경험하고도 또 다른 끈대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치매환자도 바람꽃을 기억하지 못한다. 바람꽃이 피었던 그 순간은 피터 팬도 치매환자도 아닌 ‘한 시절의 아이였으나 지금은 어른’이 된 예술가에 의해 회상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한 시절의 아이가 예술가 조습이며, 그가 기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 사진이다. 그런데 그 사진은 흑백도 칼라도 아닌 명랑과 발칙함이 뒤섞인 희한한 색이다.

*

어른들이 사실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공산당은 나쁘다고 했고, 박정희는 위대하다고 했고, 가족은 소중한다고 했고, 결혼은 신성하다고 했고, 가족은 행복하다고 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만 기억한다. 어린 시절에 대한 평범한 진술은 흔히 그 시절은 순진무구했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기술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만 기억해내지 않는다.

놀라운 기억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른들이 약속했던 행복을, 그리고 그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속삭였던 그 사실들을, 그 사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까지도 기억해낸다.

예술가가 기억해낸 그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이 깨질 때의 충격은 오롯이 조습이 연출한 사진의 장면 속에 담긴다. 어른들이 사실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그 기억들이 되살려져 사진의 장면으로 연출되면, 그 모든 기억은 우스꽝스러워진다. 기억이 되살려져 사진으로 재현될 때 발생하는 우스꽝스러움이 조습 사진을 관통하는 명랑함과 키치스러움의 기원이다. 그리하여 과거 어른들이 약속했던 사실과, 그 사실을 기억해내 연출된 사실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잊고 있던 바람꽃이 피는 순간이 다시 한 번 다가온다.

유신시대의 아이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다는 ‘이승복 어린이’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유년시절을 기억할 수 없다. 그 만큼 ‘이승복 어린이’는 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어린이의 자의식을 장악한 어른들이 반복적으로 알려준 엄숙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기까지 한 역사적 사실이다. 어른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들었던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할 때, 조습에 의해 기억된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가 반복되던 과거의 그 순간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I hate red peanut/1999)>에서 그리고 <묻지마(Do not Question/2005)>에서 나타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에서 어른들이 권유했던 도덕과 올바른 성인 조습의 기억술에 의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엄숙했던 과거가 엄숙했던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워지는 순간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기억 속에서 만난 어른들은 항상 과거를 규범적이고 도덕적으로 기억해내고 그걸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규범적으로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어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성인이 된 조습이 다시 연출할 때, 그 규범에 담긴 엄숙함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어른이 되어 과거의 어른을 패러디하기는 쉽다. 과거의 어른을 끈대라고 놀리고 조롱하려면 약간의 발칙함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끈대와 다른 어른이 되는 건 그 다지 만만하지 않다. 피터팬이 아닌 이상 누구나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른을 조롱하는 건 그래서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다른 어른이 되는 방법이다.

*

조습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연작 사진 중에서 입었던 군복을 <올드보이(old boy/2004)>에서 다시 입는다. 1999년의 옷을 2004년에 다시 꺼내 입은 조습은 미래의 모습이다. 명랑하게 어른들의 진실을 조롱하던 갓 어른이었던 조습의 모습은 간데없고, 우리는 <올드 보이>에서 미래의 조습과 마주친다. 미래의 조습은 현재의 조습에게 묻는 듯하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어른들을 조롱만 하던 명랑한 조습은 <올드 보이>를 통해 또 다른 어른이 되는 방법, 끈대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는 길을 찾아 떠난다.

어른은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사람이다. 어른은 과거를 규범적 틀에 따라 해석하기 마련이다. 그 어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 보되, 도덕적인 훈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테크닉에 달려 있다. 이 테크닉을 통해 어른들을 조롱하는 수단이었던

명랑이라는 정서는, 부친 살해 없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격상된다. B급 정서처럼 보이던 조습의 패러디가 A급 의도를 지향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습이를 살려내라(Do bring Seub back/2002>에서 반짝인다.

*

과거와의 집요한 대결은 조습의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힘이다. 과거와의 부단한 대결의 결과를 사진으로 재현하는 조습의 집요한 행위는 그의 첫 작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지 않는 작가의 DNA와도 같다. 하지만 이전의 조습 작업이 영겁처럼 되풀이 되던 어른들의 집요한 사실 주입 이데올로기를 연출된 사진을 통해 일격에 붕괴시키는 전술을 선택했다면, 다른 어른이 되는 길을 찾는 조습은 영원하게 반복되었던 규범적 과거를 찰나의 충격으로 대항하지 않고 과거의 어느 순간을 마치 영원인 것처럼 풀어놓는 방법으로 과거를 회상한다. 이것이 조습이 촛불시위와(<컨테이너 시리즈, 촛불(Container Series-Candlelight/2009), 80년대의 끝자락이었던 90년대의 <시월의 마지막 밤(The Last Night in October/2010)>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어른들이 역사를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면, 80년대와 80년대의 끝자락을 기록하고 있는 <시월의 마지막 밤>의 시간은 영웅이 지배하는 투쟁의 시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습의 기억술에 의해 재현되는 <시월의 마지막 밤>은 영웅적 투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웅적 투쟁의 시간이 미끄러지는 시간이다. 그 시대를 규범적으로 서술하는 한, 절대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를 <시월의 마지막 밤>은 담고 있다. <시월의 마지막 밤>은 한국전쟁 세대가 한국전쟁을, 4.19 세대가 4.19혁명을, 386세대가 80년대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억술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기억을 규범적 집단화라는 아주 오래된 어른들의 관습에서 벗어난다.

물론 이 길 찾기는 “가장 사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구호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속류화 된 사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때 가능하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모두 노스텔지어와 복고의 대상이 되고, 과거를 추억하는 회상거리로 전락하여 토크쇼로 전유되는 속류화 된 기억의 과잉의 시대에서 속류화 된 사적 이야기로 빠지지 않는 장치는 이 사적인 이야기가 과거를 영웅적으로 그리고 과거를 규범적으로만 해석하는 아버지의 문법에서 벗어난 후 세대의 독특한 문법 창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때이다.

성인 조습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기억해야 할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진다. 용산참사와 천안함을 이후에 또 다른 조습에 의해 충격적인 패러디로 기억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현재의 일을 기억해낼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은 만들어졌는가? 그 문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로운 문법은 불가능한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의 존재 이유가 없기에 조습은 그 문법을 찾고 있다. 그가 위장된 <올드 보이>가 아니라 진짜 ‘올드 보이’가 되었을 때까지 그 문법의 출현을 기다려야 할까? 새로운 문법의 출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다.

노명우(사회학자)